



4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민관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1월 5일 목요일 (음 9월 20일) 제265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가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과 김윤덕 공동 조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선 여가부 차관, 권익현 부안군수, 강태선 한국연맹 총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천일의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17개 참가국의 국기를 연으로 날리는 D-1000일 기념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성공 열쇠

2023 새만금 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 생중계 171개 회원국 스카우트 200여명 온라인 통해 참석

170여개국 5만여 청소년들의 열정과 도전이 펼쳐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1,000일 남았다. 전북도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는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 일원에서 '세계잼버리 붐 조성'과 '천일간의 준비와 열정'을 주제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10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드라이브인 객석 100석을 마련해 차량 안에서 무대행사를 관람하고, 전 세계 스카우트 200여명이 온라인을 통해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사를 비롯해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김윤덕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권익현 부안군수, 강입준 군산시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전북도의원과 유관기관장, 한국스카우트 관계자, 도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화합'을 주제로 한 댄스퍼포먼스 팀 '저스트 질크(Just Jerk)'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작된 행사는 주요 참석인사의 인사에 이어 국내외 축하영상 메시지, 온라인 참여자 인터뷰를 담은 영상이 화면을 통해 송출됐다. 새만금을 깨우는 스카우트의 울림을 주제로 한 부안군 댄스팀 '포스댄스컴퍼니'의 주제 공연과 '잼버리 천일의 준비, 천일의 약속'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17개 참가국의 국기를 연으로 날리는 D-1000일 기념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청소년 행사로, 지난 2017년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와 막판 집전 끝에 2023년 대회를 대한민국 새만금에 유치했다. 유치 이후 도는 즉시 잼버리추진단을 신설해 잼버리 개최 준비에 착수했으며, 지난 2018년 12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7월에는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 11명을 파견해 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지매입은 2017년 1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잼버리 개최 예정부지에 대한 공공주도 매립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 1월부터 부지매입공사에 돌입,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는 상·하수도 등 잼버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잼버리 부지 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건립해 대회 기간 중 운영부부로 활용한 뒤 향후 국제청소년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세계잼버리

리 개최 효과의 14개 시군의 파급·확산을 위해 시군의 문화·체육·관광 자원을 연계한 잼버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요현장 홍보관 운영, 교통거점, 페이스북·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잼버리 홍보 등 전국적 잼버리 붐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SOC 사업들도 세계잼버리 유치를 기점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올해 11월, 남북도로는 2023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잼버리 기간 내 용수 공급을 위한 장신배수 사업은 전액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북도는 연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조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 범정부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위와 협력해 프래잼버리를 비롯 세부 잼버리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예산 확보, 잼버리에 대한 국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며, 조직위와는 별개로 도 차원의 수송, 환경정비, 관광안내, 자원봉사를 비롯 도교육청과의 협업사업을 발굴해 분야별 세부대응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호상기자

그래핀-금속산화물 복합소재 개발 전북대 한윤봉 교수팀, 학계 '주목'

전북대학교 한윤봉 교수팀(화학공학부)의 그래핀-금속산화물 복합소재 개발 연구결과가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교수팀이 개발한 그래핀-금속산화물 기능성 나노복합소재에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로 주목받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정성과 전기적 특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연구결과가 첨단 에너지 소재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Nano Energy'(IF=16.602)에 온라인 게재됐다고 4일 밝혔다. 그래핀은 단결정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하이동 속도가 빠르고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는 소재다. 강철보다는 2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높은 열전도성을 갖는 꿈의 소재로도 알려졌다. 또한 그래핀의 격자상수는 물 분자 크기보다 작아 공기 중의 수분으로부터 소자를 보호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 반면, 페로브스카이트는 장기간 공기에 노출될 경우 수분의 침투로 화학적 불안정성, 광학적·열적 불안정성과 이온들의 이동에 의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분해 등으로 인해 태양전지 수명과 효율이 현저하게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고효율을 유지하며 장기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개발이 필요하다. /정은성기자

전북대 유휴 부지 지역민에 돌려준다

1320㎡ 녹색 치유공간 조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대학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부지를 발굴해 지역민을 위한 녹색 힐링 공간 조성한다고 밝혔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익산시와의 협력으로 올해 특성화캠퍼스 내 유휴 부지 1,320㎡를 발굴, 도시 숲과 꽃밭, 산책로 등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했다. 특히 대학과 익산시는 이곳에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캠퍼스 텃밭을 만들어 지역 이동센터나 어린이집 등에 분양했다. 이에 전북대와 익산시는 4일 익산 공동체마당(텃밭) 센터에서 김동원 총장과 이귀재 대외협력 부총장, 익산시 유은미 늘푸른공원과장, 텃밭을 분양 받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민을 위해 조성된 현장을 돌아보고 향후 유휴부지 추가 활용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은성 기자

희망의 미래, 융성하는 김제

세계가 인정하는 상생평화의 문화관광 도시 실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김제시